

## 《北夢瑣言》譯註(1)

이 태 형\*

### <目次>

I. 서론 : 해제를 포함하여

II. 《北夢瑣言》序~第二卷  
제7편까지 역주

### I. 서론 : 해제를 포함하여

손광헌(孫光憲, 896?~968)은 오대 말기와 북송 초기에 걸쳐서 능주(陵州) 귀평(貴平)에서 산 사람으로, 자는 맹문(孟文)이며, 호는 보광자(葆光子)이다.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장서가 수천 권에 이르렀다. 특히 사(詞)를 잘 지었으며, 풍격이 청수(淸秀)했다. 형저(荊渚)를 떠돌다가 고종해(高從海)에 의지해 종사(從事)를 맡았다. 고보융(高保融)과 고계충(高繼冲) 3대를 섬기면서 막부(幕府)에 있다가 검교비서감(檢校秘書監)으로 옮긴 뒤 어사대부(御史大夫)를 겸했다. 송나라 군대가 형남(荊南)으로 진입하자 세 주(州)의 땅을 바치자고 권했는데, 태조가 몹시 기뻐하며 황주자사(黃州刺史)에 임명했다. 경사(經史)에 정통해서 많은 책을 모아 편찬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 특히 그가 《五代史》, 《十國春秋》, 《資治通鑑》 등에 기록된 사료들을 인용하고, 또한 그 결함을 보충하거나 고찰하여 편찬한 《北夢瑣言》은 역사서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逸士, 문학, 역사학, 민속, 생활사, 정치사 심지어 풍토 관련 다양한

\* 한국고전번역원 선임급 직원

내용이 이 책에 들어가 있다. 당말 오대의 사회 풍속과 문인들의 일화를 모은 것으로, 당시 문학과와 문학작품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원시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北夢瑣言》 載 顧況, 白居易, 韓愈 등 중당대 저명한 문인의 사적 뿐만 아니라, 李商隱, 溫庭筠, 吳融, 皮日休, 陸龜蒙, 聶夷中, 許棠, 魚玄機, 杜荀鶴, 唐求, 羅隱의 시인과 韋庄, 和凝, 薛昭緯, 馮涓 晚唐五代의 花間詞人에 대한 일사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전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사인의 생평과 행적, 저술상황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학술자료가 된다. 또한 《北夢瑣言》에는 자신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역사의 여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여기에는 조정 안팎에서 벌어진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명인들의 일사(逸事) 및 그들에 대한 평가, 도교나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 일반백성들의 풍속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 故事成語 등 약 400조 이상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북몽쇄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반면 중국에서 《북몽쇄언》에 관한 연구로는 여타 史籍과 비교 분석하거나, 이를 통해 晚唐五代의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고찰하거나, 근대한어를 이해하는 주요한 텍스트로 삼아 중국어학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sup>2)</sup>

송초 太祖開寶 6년(973)에서 開寶 7년(974) 사이에 薛居正, 盧多遜, 扈蒙, 張澹, 劉兼, 李穆 등에 의한 관에서 편찬한 역사서 《舊五代史》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필기 저술에도 영향을 받아 송대 초기에 당말오

- 1) 이은진, 〈亂世 속 治世의 記錄 -宋初筆記北夢瑣言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논집》 제103집, 2017, 265~285쪽 참조.
- 2) 대표적인 중국의 연구논문을 나열보면 다음과 같다. 芝毅, 宋元筆記叢書《北夢瑣言》, 讀書, 1984.1./胡可先, 《北夢瑣言志疑》, 徐州師範學院學報, 1987.3./房銳, 《孫光憲與北夢瑣言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 2002./房銳, 《北夢瑣言與晚唐五代歷史文化》, 求索, 2004.4./房銳, 《北夢瑣言所錄詩學文獻試探》, 杜甫研究學刊, 2018.6./秦盼、趙劉昆, 《北夢瑣言和洛陽摺紳舊聞記》中的騙局情節研究, 寧夏大學人文學院, 2019./陳亞琳, 《北夢瑣言聯合式複音詞研究》, 西昌學院學報, 2009.6. 등이 있다.

대십국에 관한 많은 저작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당시의 필기작품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인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만당과 오대십국의 政事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전하고자 소명의식을 가지고 쓴 필기류이다. 다음으로, 당시 세상에 떠돌아다니던 기이한 이야기나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하거나 지방의 풍속들을 수집해서 엮었다. 손광현의 《北夢瑣言》역시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그는 여러 조대를 거치며 관료로 지내면서 정치 경험이 풍부했고, 다양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문을 읊었다. 그는 이 책에는 당에서부터 북송의 건국까지, 황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는 전계층을 다루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원뿐만 아니라 四川에서 湖北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채집하여 실었다. 특히 과거의 사건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역사적 사건이나 문학적 일화를 평가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돋보인다.

《北夢瑣言》은 《宋志》에는 소설류에 들어가 있다. 《郡齋讀書志》, 《直齋書錄解題》에는 자부 소설가류에 들어가 있고 13권이라고 되어 있다. 《文獻通考》, 《四庫全書總目》도 마찬가지로 20권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 전하는 것은 《稗海》 본 20권, 《雅雨堂藏書》본, 光緒 5년(1879) 仁邑公局 刻本과 1960년 중화서국 배인본, 2002년 點校本 등이 있다. 본고는 賈二強의 《北夢瑣言》(2002년 點校本)을 저본으로 삼고, 여타 자료를 참고하여 역주했다. 후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당말 오대십국 및 북송 초기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 사료로서 《北夢瑣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본서의 완역을 통해 향후 《北夢瑣言》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의 연구는 물론 사회 문화적인 연구 및 문학 텍스트 연구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초학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北夢瑣言》序~第二卷까지 역주

## 1. 서문

唐自廣明亂離，秘籍亡散。武宗已後，寂寞無聞，朝野遺芳，莫得傳播。僕生自岷峨，官於荊郢。咸京故事，每愧面牆，遊處之間，專於博訪。頃逢故鳳翔楊毗少尹，多話秦中平時舊說，常記於心。他日渚宮見元澄中允，款狎笑語，多符其說。元公謂舊族一二子弟曰：“諸賢生在長安，聞事不迨富春。此則存好問之所宏益也。”厥後每聆一事，未敢孤信，三複參校，然始濡毫。非但垂之空言，亦欲因事勸戒。三紀收拾筐篋，爰因公退，咸取編連。先以唐朝達賢一言一行列於談次，其有事類相近，自唐至後唐、梁、蜀、江南諸國所得聞知者皆附其末，凡纂得事成三十卷。《禹貢》云“雲土夢作乂”，《傳》有“旼於江南之夢”。鄙從事於荊江之北，題曰《北夢瑣言》，瑣細形言，大即可知也。雖非經緯之作，庶勉後進子孫，俾希仰前事，亦絲麻中菅蒯也。通方者幸勿多誚焉。

당나라는 광명(廣明)<sup>3)</sup> 연간부터 난리가 나자 소중한 보관된 전적이 망실되었다. 무종(武宗) 이후로 적막하여 들리는 것이 없고 조정과 재야의 남아있는 문장은 퍼지지 못했다. 나는 민아(岷峨)<sup>4)</sup>에서 태어나 형영(荊郢)<sup>5)</sup>에서 관직을 역임하였다. 함양(咸陽)<sup>6)</sup>의 고사에 대해 면장(面牆)<sup>7)</sup>하

3) 광명(廣明): 당나라 희종(僖宗)의 연호로 이때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났다.

4) 민아(岷峨): 촉 땅의 산으로 민은 민산(岷山), 아는 아미산(峨嵋山)이다. 훗날 소식도 이 지역에서 태어난다.

5) 형영(荊郢): 호북성의 지명으로 형은 형주, 영은 초나라 수도로 영성(郢城), 영도(郢都)로도 쓴다.

6) 함양(咸陽):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秦)나라의 도읍이 있는 곳으로 당나라 수도인 장안 옆에 위치한다.

7) 면장(面牆): 이치에 어두워 꽉 막히고 고루하다는 뜻이다. 공자가 아들 백어(伯魚)에게 “너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 같다.”라고 했다. 《論語 陽

여 매번 부끄러워서 유람하고 머무는 사이에 널리 찾아보는데 오로지 힘 썼다. 지난번에 고 봉상(鳳翔)의 소운 양비(楊毗)를 만나서 진(秦)나라 중에 태평한 시기의 옛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였는데 항상 마음에 기억하였다. 훗날 저궁(渚宮)에서 징중 원운(澄中 元允)을 보고 친하게 지내며 웃으며 말하는데 대부분 그의 말에 부합하였다. 원운이 명문가의 한두 자제에게 말하기를, “여러 현인이 장안에서 태어났지만 사건 듣는 것은 부춘(富春)<sup>8)</sup>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도움이 큰 물기 좋아하는 것에 존재한다.”하였다. 그 뒤로 매번 한 가지 일을 들을 때마다 감히 혼자 믿지 못하고 세 번 반복하고 교정하고서 그러고서 비로소 붓에 먹물을 적었다. 단지 빈말을 드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일로 인해 권면하고 경계하려는 것이다. 36년간<sup>9)</sup> 책 상자 속의 책을 수습하여 이에 공이 퇴직하였기에 함께 자료를 모아 엮었다. 먼저 당나라의 현달한 이의 한 마디 한 행동을 이야기 다음에 열거하고 비슷한 사건을 분류하였다. 당나라부터 후당(後唐), 후량(後梁), 후촉(後蜀)에 이르기까지 양자강 이남에 자리한 여러 나라에서 들어서 알게 된 사실 모두를 끝에는 덧붙여서 모두 30권을 완성할 수 있었다. 《우공(禹貢)》에 이르기를, “운택(雲澤)에서 흙이 나오고 몽택(夢澤)이 다 스러졌다”라고 하였고,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강남의 몽택에서 사냥하였다.”라고 하였다. 내가 형강(荊江)의 북쪽에서 종사하기에 《북몽쇄언(北夢瑣言)》이라 제목을 달았으니 ‘쇄(瑣)’는 세세하다는 형용의 말이니 대체를 즉시 알 수 있다. 비록 모범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후진(後進)과 자손을 권면하려고 예전의 고사를 받들어 찾게 한다면 또한 비단실이나 삼실 중에 매우 하찮은 것(菅蒯)<sup>10)</sup>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문서들

貨》

8) 부춘(富春): 광무제(光武帝) 때 엄광(嚴光)은 광무제와 원래 동문수학한 친구 사이였는데, 광무제가 등극한 이후 광무제의 간곡한 부름을 거절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여 몸소 농사짓고 낚시질 하면서 살았다. 《후한서(後漢書)》〈엄광전(嚴光傳)〉.

9) 36년간: 기(紀)는 통상 12년을 가리킨다.

10) 비단실이나 삼실 중에 매우 하찮은 것(菅蒯): 본래 곶풀이나 락풀은 매우 하

께서 아무쪼록 많은 질타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 2. 《북몽새언(北夢瑣言)》 第一卷

### 1) 唐宣稱進士

唐宣宗皇帝好儒雅，每直殿學士從容，未嘗不論前代興亡。頗留心貢舉，嘗於殿柱上自題曰“鄉貢進士李某”。或宰臣出鎮，賦詩以贈之，詞皆清麗。凡對宰臣言政事，即終日忘倦。洎僖宗皇帝好蹴球、鬥雞爲樂，自以能於步打，謂俳優石野豬曰：“聯若作步打進士，亦合得一狀元。”野豬對曰：“或遇堯舜禹湯作禮部侍郎，陛下不免且落第。”帝笑而已。原其所好優劣，即聖政可知也。

당나라 선종(宣宗)황제는 유아(儒雅)한 것을 좋아하여 매번 조용하게 전각의 학사와 만나서 일찍이 전대의 흥망성쇠를 논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자못 과거시험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찍이 전각 기둥 위에도 스스로, ‘향공진사(鄉貢進士)<sup>11)</sup> 이어무개’라고 적었다. 간혹 재상이 번진(藩鎮)에 출진하면 시를 지어서 주었는데 문장이 모두 맑고 아름다웠다. 무릇 재상을 대면하여 정사를 언급하면 곧 운종일이 지나도록 피로를 몰랐다. 희종(僖宗)황제부터 축구와 닭싸움을 좋아하여 즐기고 있는데 뛰어가 공을 차는데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배우 석야저(石野豬)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보타진사(步打進士)<sup>12)</sup>를 만든다면 역시 장원으로 합격할 것이다.”하니, 석야저

참은 물건을 말하는데, 재주와 능력이 하찮은 자신을 버리지 않음을 뜻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2년 11월조에 “비록 비단실이나 삼실이 있더라도 골풀이나 락풀을 버리지 말라. [雖有絲麻 無棄菅蒯]”라고 하였다.

11) 향공진사(鄉貢進士): 향공(鄉貢)으로 진사가 되는 것으로, 당나라 때 학관(學館)의 고시(考試)를 거치지 않고 주현(州縣)에서 추천을 받아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선비를 말한다. 선종황제는 군주이므로 과거를 보지 않지만 평소 유학을 좋아하여 자신이 당대의 문사에 대등한 학문을 한다는 표현이다.

12) 보타진사(步打進士): 축구(蹴毬)로 진사시(進士試)를 보인다는 말이다. 학문이나 무예가 아닌 잡기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실제로 있지는 않다.

가 대답하기를, “혹시 요순우탕(堯舜禹湯)의 성군을 만나 예부시랑이 된다면 폐하께서는 낙제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 하니 황제는 웃고 말았다. 그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는 근원을 따진다면 곧 성군의 정사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 2) 太尉李英俊

太尉李德裕幼神俊，憲宗賞之，坐於膝上，父吉甫每以敏辯誇於同列。武相元衡召之，謂曰：“吾子在家所嗜何書”意欲探其志也。德裕不應。翌日，元衡具告吉甫，因戲曰：“公誠涉大癡耳。”吉甫歸以責之，德裕曰：“武公身為帝弼，不問理國調陰陽，而問所嗜書。書者，成均禮部之職也。其言不當，所以不應。”吉甫復告，元衡大慚，由是振名。

태위 이덕유(李德裕)<sup>13)</sup>는 어려서 신령하고 빼어나서 헌종(憲宗)이 상을 내리고 무릎 위에 앉히니 아버지 이길보(李吉甫)<sup>14)</sup>가 매양 유창한 언변으로 같은 반열에서 자랑하였다. 재상 무원형(武元衡)<sup>15)</sup>이 불러들여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어떠한 책을 즐겨본다.”라고 하니 그 취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였지만, 이덕유는 대응하지 않았다. 다음날 무원형이

13) 이덕유(李德裕): 787~849.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명재상이며 시인으로 자는 문요(文饒)이다. 명재상 이길보(李吉甫)의 아들로 6년을 정승으로 있으면서 번진(藩鎮)의 화를 예방한 치적을 이루었다. 반대당李宗閔(李宗閔)에 의하여 검남(劍南)으로 좌천되어 가서 소요를 진정시켰다. 선종(宣宗) 즉위 후 참소를 받아 애주사호참군사(崖州司戶參軍事)로 폄척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14) 이길보(李吉甫): 758~814. 당나라 사람으로 자는 홍헌(弘憲), 시호는 충의(忠懿)이다. 요주 자사(饒州刺史)로 부임하자, 전 자사(刺史)가 냇이나 죽어 주성(州城)에 요물이 있다 하여 버려 두고 거처하지 않았으나, 이길보는 풀을 베어 내고 일을 보았다. 저서에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가 있다. 《唐書 卷146 李栖筠列傳 李吉甫》《舊唐書 卷148 李吉甫列傳》

15) 무원형(武元衡): 당나라 말기의 여진 재상이었으며 헌종(憲宗 806~820) 때 평장사(平章事)로 병마의 권환을 맡기도 하였다. 이 때 창의 절도사(彰義節度使) 오소성(吳少誠)의 손자 원제(元諡)가 군사를 놓아 노략질을 하며 반란을 일으키므로 정부에서 대병을 출동하여 토벌하는데, 평로(平虜) 절도사 이사도(李師道)가 원제를 사하여 주기를 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으니, 그만 자객을 보내어 무원형을 살해하는 폭거로 나왔다. 《십팔사략(十八史略)》 제5권.

이길보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인하여 장난삼아 말하기를, “공은 참으로 큰 바보(大癡)<sup>16)</sup>일 따름이군요.”라고 하였다. 이길보가 돌아와서 꾸짖으니 이덕유가 말하기를, “무공(武公)은 황제를 보필하는 재상 신분인데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묻지 않고, 즐겨보는 책만 하문하셨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국자감(國子監)과 예부(禮部)가 맡은 직무입니다. 그 말씀이 온당하지 않으니 대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길보가 다시 말해주니 무원형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떨쳤다.

### 3) 鄭光免稅

宣宗舅鄭光敕賜雲陽、鄆縣兩莊，皆令免稅。宰臣奏恐非宜，詔曰：“朕以光元舅，欲優異之，初不細思，是免其賦。爾等每於匡救，必盡公忠。親戚之間，人所難議。苟非愛我，豈盡嘉言。庶事能如斯，天下何憂不治？有始有卒，當共守之。”尋罷。葆光子同僚嘗買一莊，喜其無稅，乃謂曰：“天下莊產，未有不征。”同僚以私券見拒。爾後子孫爲縣宰定稅，求祈不暇。國舅尚爾，庶僚胡爲。

선종의 장인 정광(鄭光)에게 운양(雲陽)과 박현(鄆縣)의 두 별장을 조칙을 내려 하사하니 모두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재상이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아뢰니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짐에게는 정광이 장인이니 남과 다르게 우대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세심하게 생각 않고 그 세금을 면제하였다. 그대들이 매번 바로잡고 구제할 때마다 반드시 공정과 충성을 다한다. 친척 사이에 타인이 끼여 의논하기 어려운 법인데 진실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훌륭한 간언을 다할 수 있겠는가. 다른 여러 정사를 이처럼 할 수 있다면 천하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는가. 처음

16) 큰 바보(大癡): 크게 어리석다는 뜻으로, 한유(韓愈)의 <송궁문(送窮文)>에서, 다섯 궁귀(窮鬼)들을 몰아내려고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대가 우리들을 몰아서 내쫓으려고 하니, 작게는 약으나 크게는 어리석도다.[驅我令去 小黠大癡]”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 마땅히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라 하고 곧바로 조칙을 취소하였다.

보광자(葆光子)<sup>17)</sup>의 동료가 일찍이 별장 한 채를 사들인 적이 있는데, 세금이 없어서 기뻐하고 이내 말하기를, “세상의 별장에서 나오는 산물은 세금 매기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 동료는 사문서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로 자손이 고을 수령이 되면 세금을 확정하니 수령이 되기를 기원하느라 겨를이 없을 정도이다. 황제의 장인도 오히려 이러할진대, 다른 관료들은 어떻겠는가.

#### 4) 再興釋教

武宗嗣位，宣宗居皇叔之行，密遊外方。或止江南名山，多識高道僧人。初聽政，謂宰相曰：“佛者，雖異方之教，深助理本，所可存而勿論，不欲過毀，以傷令德。”乃遣下詔。會昌中，靈山古跡招提棄廢之地，並令複之，委長吏擇僧之高行者居之，唯出家者不得忘度也。懿宗即位，唯以崇佛爲事。相國蕭仿、裴坦時爲常侍諫議，上疏極諫，其略云：“臣等聞玄祖之道，用慈儉爲先；素王之風，以仁義是首。相沿百世，作則千年。至聖至明，不可易也。如佛者，生於天竺，去彼王宮。割愛中之至難，取滅後之殊勝。名歸象外，理出塵中，非爲帝王所能慕也。”廣引無益有損之義，文多不錄，文理婉順，與韓愈元和中上《請除佛骨表》不異也。懿皇雖聽覽稱獎，竟不能止。末年迎佛骨，才至京師，俄而晏駕。識者謂大喪之兆也。

무종(武宗)이 제위를 계승하자 선종이 황숙의 항렬을 차지하면서 몰래 먼 지방으로 유람하였다. 혹은 강남의 명산에 머물면서 고상한 도사와 승려를 많이 알고 지냈다. 처음 정사를 돌볼 때에 재상에게 말하기를, “부처라는 것은 비록 이방의 종교이지만 이치와 근본에 깊이 도와주니 보존하

17) 보광자(葆光子): 저자인 손광헌(孫光憲, 901~968)의 자호이다. 북송의 시인으로 자는 맹문(孟文)이다. 남평에서 3대가 벼슬하여 관직은 형남절도부사, 조의랑, 검교비서소감, 시어사중승에 이른다. 송나라에 입조하여 황주자사가 되었다가 태조 건덕 6년에 죽었다.

는 바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훼손하여 영덕(令德)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바로 사람을 보내어 조서를 내렸다. 회창(會昌, 당나라 무종의 연호 841~846) 연간에 영산(靈山) 옛 터에 사찰<sup>18)</sup>이 버려진 땅이 있는데 모조리 복구하게 하였다. 현지 장리(長吏 수령)에게 맡겨 고행(高行)하는 승려를 가려서 살게 하니 오직 출가한 사람만이 법도를 잇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종(懿宗)이 즉위하니 오로지 불교 숭앙을 일삼았다. 재상 소방(蕭仿)과 배탄(裴坦)이 당시에 상시간의(常侍諫議)가 되어 상소를 올려 지극하게 간언하니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 등이 듣건대, 현조(玄祖 노자)의 도는 자애와 검소를 급선무로 삼고, 소왕(素王 공자)의 풍교는 어짊과 의리를 먼저 합니다. 연혁이 백세(百世)토록 이어오면서 법칙을 만들어 천년을 지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밝으시니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 같은 분은 천축국(天竺國 인도)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애중(愛中)을 베어내고 자못 뛰어난 멸후(滅後)<sup>19)</sup>를 취하였습니다. 이름은 형상 밖으로 돌아가고 이치는 먼지세상 속에서 나오니 제왕이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없고 손해만 있는 의리를 널리 인용하여 원문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지만 문리는 부드럽고 유순해서 한유(韓愈)가 원화(元和) 연간에 올린 《청제불골표(請除佛骨表)》와 다르지 않다. 의종황제는 비록 간언을 받아들여 칭찬하였지만, 끝내 불교 숭앙을 멈추지는 못했다. 말년에 부처의 유골을 맞이하는데 이제 막 장안에 이르자 갑자기 황제가 붕어<sup>20)</sup>하였다. 식자는 나라를 크게 잃을 징조라고 말하였다.

18) 사찰: 원문의 ‘초제(招提)’는 사원 또는 승려의 이칭으로, 여기서는 사원을 가리킨다.

19) 멸후(滅後): 부처가 적멸(寂滅)한 뒤의 세상을 말한다.

20) 붕어(崩御): 원문의 ‘안가(晏駕)’는 임금의 죽음을 형용하는 말이다. 《사기(史記)》〈범수전(范雎傳)〉에 “궁차가 하루 아침에 편히 쉬게 되었으니 이것이 알 수 없는 일이다.(宮車一日晏駕, 是事之不可知者.)”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5) 鄭氏女廬墓

唐大中年, 兗州奏: “先差赴慶州行營押官鄭神佐陣沒, 其室女年二十四, 先亡父未行營已前許嫁右驍雄軍健李玄慶, 未受財禮。阿鄭知父神佐陣沒, 遂與李玄慶休親, 截髮, 往慶州北懷安鎮收亡父遺骸, 到兗州瑕丘縣進賢鄉與亡母合葬訖, 便於塋內築廬。”識者曰: “女子適邊, 取父遺骸合葬。烈而且孝, 誠可嘉也。廬墓習於近俗, 國不能禁, 非也。”廣引《禮經》而證之。

당나라 대중(大中, 당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847~860) 연간에 연주사(兗州刺史)가 아뢰기를, “앞선 차사(差使)가 경주(慶州)에 부임하여 감영으로 가자 감압관(監押官) 정신좌(鄭神佐)가 진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24살인데 먼저 사망한 아버지가 감영에 부임하기 이전에 우효웅군건(右驍雄軍健) 이현경(李玄慶)에게 시집을 갖지만 재례(財禮)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 정씨는 아버지 정신좌가 감영에서 사망한 줄 알고서 마침내 이현경과 이혼하고 머리카락을 끊어 경주 북쪽 회안진(懷安鎮)에 가서 죽은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고 연주 하구현(瑕丘縣) 진현향(進賢鄉)에 이르러 죽은 어머니와 합장을 마치고 곧장 무덤 안에 여막을 쌓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식자가 말하기를, “딸이 변방에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해 합장하였다. 열녀이면서 효성스러우니 진실로 가상할 만하다. 시묘살이는 근래의 풍습에 익숙해 나라에서 금지하지 못하니 잘못되었다.”라고 했다. 《예경(禮經)》을 널리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6) 日本國王子棋

唐宣宗朝, 日本國王子入貢, 善圍棋。帝令待詔顧師言與之對手。王子出本國如楸玉局、冷暖玉棋子。蓋玉之蒼者如楸玉色, 其冷暖者言冬暖夏涼。人或過說, 非也。王子至三十三下, 師言懼辱君命, 汗手死心始敢落指。王子亦凝目縮臂數四, 竟伏不勝, 回謂禮賓曰: “此第幾手”答曰: “其第三手也。”王子願見第一手, 禮賓曰: “勝第三可見第二, 勝第二可見第一。”王子撫局歎曰: “小國之一不及大國之三。此夷人也, 猶不可輕, 況中國之士

乎。”葆光子曰：“蜀簡州刺史安重霸黷貨無厭。部民有油客子者，姓鄧，能棋，其力粗贍。安輒召與對敵。只令立侍，每落一子，俾其退立於西北牖下，俟我算路然後進之，終日不下十數子而已。鄧生倦立且饑，殆不可堪。次日又召，或有諷鄧生曰：‘此侯好賂，本不爲棋，何不獻效而自求退’鄧生然之，以中金十錠獲免，良可笑也。”

당나라 선종조에 일본국 왕자가 입국하여 조공을 바쳤는데 바둑을 잘 두었다. 황제가 고사언(顧師言)을 조칙으로 명하여 그와 맞수가 되게 하였다. 왕자가 본국으로 떠나자 추옥(楸玉) 바둑판 같았고, 차갑고 따뜻한 옷으로 된 바둑돌 같았다. 대개 푸르스름한 옥은 뜨고추처럼 옥색을 띠고, 그 차갑고 따뜻한 것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은 혹 잘못된 설명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왕자가 33수 짜 바둑을 두자 고사언이 어명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손에 땀을 쥐고 마음을 억눌러 비로소 과감하게 바둑을 두었다. 왕자 역시 응시하며 팔뚝을 서너 차례 오므리며 주저하다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승복하였다. 돌아와 예빈관(禮賓官)에게 말하기를, “이번은 몇 번째 수인가?”하니, 답하기를, “제3수입니다.”하였다. 왕자가 제1수를 보기를 원하자 예빈관이 말하기를, “제3수를 이기면 제2수를 볼 수 있고, 제2수를 이기면 제1수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자가 바둑판을 어루만지며 탄식하기를, “소국이 대국에 미치지 못한 것이 세 가지이니 이 자는 이적(夷狄)의 사람이니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 없거늘, 하물며 대국의 선비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손광현은 이렇게 생각한다. 촉(蜀)지방의 간주자사(簡州刺史) 안중패(安重霸)는 검은 재물을 싫어하지 않았다. 부락민 중에 기름 장수가 있으니 성은 등(鄧)씨인데 바둑을 잘 두었고 그 재력은 조금 넉넉하였다. 안중패가 매번 불러서 바둑을 대적하였다. 단지 서서 모시도록 하였는데 매번 한 수를 둘 때마다 서북쪽 창문 아래에 물러나 서게 하고 자신이 둘 곳을 계산한 연후에 나오게 하니 하루 종일 두어도 10수를 두지 못할 뿐이다. 등생은 힘들게 서있어 배고프기도 해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음날

또 부르자 누군가 등생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수령은 너물을 좋아하오. 본디 바둑 따위는 두지 않는데 어찌 너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구하는가!”라고 하였다. 등생이 맞다고 생각하고 중금(中金) 10덩이를 바치고 면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 7) 駁杜預

大中時, 工部尚書陳商《立漢文帝廢喪議》、《立春秋左傳學議》, 以“孔聖修經, 褒貶善惡, 類例分明, 法家流也。左丘明爲魯史, 載述時政。惜忠賢之泯滅, 恐善惡之失墜。以日系月, 修其職官。本非扶助聖言, 緣飾經旨, 蓋太史氏之流也。舉其《春秋》則明白而有實, 合之《左氏》則叢雜而無征。杜元凱曾不思夫子所以爲經當與《詩》《書》《周易》等列, 丘明所以爲史當與司馬遷、班固等列, 取二義乖刺不侔之語參而貫之, 故微旨有所未周, 琬章有所未一。”文多不載。又睹吳郡陸龜蒙亦引啖助、趙匡爲證, 正與陳工部義同。葆光子同僚王公貞範精於《春秋》, 有駁正元凱之謬, 條緒甚多, 人咸訝之。獨鄙夫嘗以陳、陸、啖、趙之論竊然之, 非苟合也, 唯義所在。

대중 연간 때 공부상서 진상(陳商)의 《입한문제폐상의(立漢文帝廢喪議)》、《입춘추좌전학의(立春秋左傳學議)》에서 “공자가 경전을 다듬어 선악을 포폄(褒貶)하고 종류별로 분명하게 나열하시니 법가의 부류이다. 좌구명(左丘明)은 노(魯)나라의 사관이 되어 당시의 정치를 기재하여 서술하였다. 민멸된 충신과 현인을 아쉬워하고 실추된 선악을 두려워하였다. 날로 달로 그 관직을 닦았다. 본디 성인의 말씀을 붙잡고 경전의 의미를 꾸미는 것이 아니니 대개 태사씨(太史氏)의 부류이다. 《춘추(春秋)》를 예를 들면 명백하고도 실체가 있지만, 《좌씨전(左氏傳)》으로 합치니 잡다하게 모아놓고 증거가 없다. 두원개(杜元凱)<sup>21)</sup>는 일찍이 공자께서 경전

21) 두원개(杜元凱): 두예(杜預, 222~284)를 가리키며, 원개는 그의 자(字)이다. 중국 진대(晉代)의 학자·정치가로, 진주 자사(秦州刺史)·진남 대장군(鎮南大將軍)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춘추좌씨경전집해(春秋左氏經傳集解)》가 있

을 지어 마땅히 《시경》, 《서경》, 《주역》 등과 나란히 둔 것과 좌구명이 사관이 되어 사마천(司馬遷), 반고(班固) 등과 나란히 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의리가 괴리되고 맞지 않는 말을 취하여 나란히 하여 관찰시켰기 때문에 미세한 의미를 주밀하게 하지 못했고, 아름다운 문장은 한결같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문장은 대부분 신지 않았다. 또 오군(吳郡)의 육구몽(陸龜蒙)<sup>22)</sup> 역시 담조(談助)와 조광(趙匡)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니 참으로 진공부의 논의와 동일하다. 보광자의 동료 왕정범(王貞範)은 《춘추》에 정통하여 두원개의 오류를 반박하고 바로잡았는데 조리와 단서가 매우 많아 사람들 모두 의아해 하였다. 유독 나는 일찍이 진상, 육구몽, 담조, 조광의 논의가 속으로 맞다고 여기지만,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의리가 합당한 것만 따른다.

#### 8) 李太尉白少傅

白少傅居易文章冠世, 不躋大位。先是劉禹錫大和中爲賓客時, 李太尉德裕同分司東都。禹錫謁於德裕曰: “近曾得《白居易文集》否” 德裕曰: “累有相示, 別令收貯, 然未一披。今日爲吾子覽之。” 及取看, 盈其箱笥, 沒於塵坩。既啟之而複卷之, 謂禹錫曰: “吾於此人不足久矣。其文章精絕, 何必覽焉。但恐回吾之心, 所以不欲觀覽。” 其見抑也如此。衣冠之士並皆忌之, 咸曰: “有學士才, 非宰臣器。” 識者於其答制中見經綸之用, 爲時所排, 比賈誼在漢文之朝不爲卿相知。人皆惜之。葆光子曰: “李衛公之抑忌白少傅, 舉類而知也。初文宗命德裕論朝中朋黨, 首以楊虞卿、牛僧孺爲言。楊、牛即白公密友也。其不引翼, 義在於斯, 非抑文章也, 慮其朋比而制掣也。”

소부 백거이(白居易)의 문장은 세상의 으뜸인데 큰 지위에는 오르지 못

다. 춘추학으로서의 좌씨학을 집대성하였고, 《좌씨전(左氏傳)》을 춘추학의 정통적 위치로 올려놓았다.

22) 육구몽(陸龜蒙): 당나라의 고사(高士)이다. 자는 노망(魯望), 호는 강호산인(江湖散人)·천수자(天隨子)·보리선생(甫里先生)·부옹(涪翁)·강상장인(江上丈人) 등이다. 시인으로 유명하며, 저서에 《뇌사경(耒耜經)》, 《소명록(小名錄)》, 《입택총서(笠澤叢書)》, 《보리집(甫里集)》 등이 있다.

했다. 이보다 앞서 유우석(劉禹錫)이 대화(大和) 연간에 세자빈객(世子賓客)이 되었을 때 태위 이덕유(李德裕)가 함께 동도(東都 낙양)를 나누어 관리하였다. 유우석이 이덕유를 뵈고 말하기를, “최근에 《백거이문집(白居易文集)》을 얻었습니까?”하니, 이덕유가 말하기를, “여러 번 보여주길래 별도로 받아서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소. 오늘 당신을 위해 열람해 보겠네.”라고 하였다. 가져다 보았는데 책상자를 채우고서 먼지 구덩이에 묻혀있었다. 이미 열어보고서 다시 말아 넣고는 유우석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분에 대해 오래 얘기하지 못하겠네. 그 문장이 정밀하고 절묘하니 어찌 꼭 열어볼 필요가 있겠나. 다만 나의 마음을 되돌려서 관람하고 싶지 않을까 두렵구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배척받으니 의관을 갖춘 사대부들이 모두 꺼려서 함께 말하기를, “학사의 재주가 있지만, 재상의 그릇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식자는 답제(答制)<sup>23)</sup> 중에 실린 실용의 경륜을 보고 당시에 배척을 당한데 대해 가의(賈誼)가 한나라 문제(文帝)의 조정에서 공경재상들에게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비견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한다.

손광현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위공(李衛公 이덕유)이 백거이를 억누르고 꺼린 것은 비슷한 부류를 들어 알 수 있다. 애초에 문종이 이덕유에게 명하여 조정의 봉당에 대해 논하게 하니 제일 먼저 양우경(楊虞卿), 우승유(牛僧孺)를 언급하였다. 양우경과 우승유는 바로 백거이의 가까운 친구이다. 날개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의리가 담겨 있으니 문장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봉비가 되어 제제하거나 말릴 것을 염려한 것이다.

#### 9) 牛僧孺奇士

相國牛僧孺，字思黯，或言牛仙客之後，居宛葉之間。少單貧，力學，

23) 답제(答制): 문체 중의 하나로 대책(對策)이라고도 한다.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구하는 글을 내리면 유학자들이 글을 올려 정사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 과거시험에 주로 나오며 이렇게 정책을 묻고 정책을 대답하는 것을 책문(策問)이라 한다.

有倜儻之志。唐永貞中，擢進士第，時與同輩過政事堂。宰相謂曰：“掃廳奉候。”僧孺獨出曰：“不敢。”眾聳異之。元和初登制科，曆省郎、中書舍人、禦史、中書門下平章事、揚州、建州兩鎮、東都留守、左僕射。先是，撰《周秦行記》，李德裕切言短之。大中初卒，未賜諡。後白敏中入相，乃奏定諡曰“簡”，白居易曰“文”。葆光子曰“僧孺登庸在德裕之先，又非忌才所能掩抑。今以牛之才術比李之功勳，自然知其臧否也。且《周秦行記》非所宜言，德裕著論而罪之，正人覽記而駭之。勿謂衛公掩賢妒善，牛相不罹大禍，亦幸而免。”

재상 우승유는 자가 사암(思黯)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선객(牛仙客)의 후인으로 완엽(宛葉)의 사이에 산다고 하였다. 어려서 가난했지만 학문에 힘써서 대범한 기지가 있었다. 당나라 영정(永貞) 연간에 진사에 급제하여 당시 동년배와 함께 정사당(政事堂)을 지나갔다. 당시 재상이 말하기를, “청사를 청소하고 문후를 드리라.”하자 우승유가 홀로 나와 말하기를,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무리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원화(元和) 초에 제술과(製述科)에 급제하여 성랑(省郎), 중서사인, 어사, 중서문하평장사, 양주(揚州), 복건(建州) 두 진번, 동도(東都 낙양) 유수, 좌복야를 역임하였다. 이보다 앞서 《주진행기(周秦行記)》를 찬술하였는데 이덕유가 말을 잘라서 짧게 줄였다. 대중(大中) 초에 사망하여 시호를 내리지 않았다. 훗날 백민중(白敏中)이 재상에 입각하자 바로 주청하여 시호를 ‘간(簡)’이라 정하고 백거이가 ‘문’이라 하였다.

손광현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승유는 이덕유보다 먼저 등용되었고 또 재주를 시기하여 억누를 수는 없다. 지금 우승유의 재주로 이덕유의 공훈에 비교한다면 당연히 우열을 알게 된다. 게다가 《주진행기》는 알맞게 한 말이 아니라서 이덕유가 반론을 저술하여 죄를 주었으며, 바른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여 깜짝 놀란다. 그렇다고 위공(衛公 이덕유)이 현자를 가리고 선인을 질투한다고 말하지 말라. 우승유 재상이 큰 재앙을 만나지 않았으니 또한 요행히도 면하였다.

10) 令狐瀉撥文解

唐大中末, 相國令狐綯罷相, 其子瀉應進士舉在父未罷相前, 預拔文解及第. 諫議大夫崔瑄上疏, 述瀉弄父權, 勢傾天下, 以“舉人文卷須十月前送納, 豈可父身尚居於樞務, 男私拔其解名, 幹撓主司, 侮弄文法, 恐奸欺得路, 孤直杜門”云云, 請下禦史台推勘. 疏留中不出. 葆光子曰: “令狐公在大中之初, 傾陷李太尉, 唯以附會李紳而殺吳湘. 又擅改元和史, 又言賂遺闈宦, 殊不似德裕立功於國, 自儉立身. 掩其小瑕, 忘其大美. 洎身居岩廟, 別無所長, 諫官上章可見之矣. 與朱崖之終始殆難比焉.”

당나라 대중 말기에 상국 영호도(令狐綯)가 재상이 파직되자, 그 아들 영호호(令狐瀉)가 진사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아버지가 재상에 파직되기 이전이라 미리 문장을 뽑아서 급제하였다. 간의대부 최선(崔瑄)이 상소하여 영영호가 아버지의 권력을 농단하여 천하를 무너뜨릴 권세를 서술하면서 “응시자의 문권은 반드시 10개월 이전에 송납해야 하는데 어찌 아버지의 신분이 아직도 추밀원의 직무에 있다고 해서 아들이 사사로이 급제자 명단에 뽑히고 담당시관을 어지럽히며 문과 법도를 모독하였으니 아마도 간사하게 출세길을 속여 홀로 독차지하며 문호를 단았습니다.”라고 운운하며 어사대에 내려보내 추감(推勘)하도록 주청하였다. 상소는 궁중에 체류되어 제출되지 못했다.

손광현은 이렇게 생각한다. 영호공이 대중 초기에 이태위를 함정에 빠뜨리고 오직 이신(李紳)만 건강부회하여 오상(吳湘)을 죽였다. 또 멋대로 원화의 역사를 개원하고 또 환관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자못 이덕유처럼 나라에 공을 세우고 스스로 검소하여 몸을 세우지 않았다. 그 작은 흠을 적발하고 그 큰 미덕을 잊었다. 암묘(巖廟 묘당(廟堂) 즉 재상)에 있을 때부터 별다른 장기가 없는 것을 간관의 상소에서 볼 수 있다. 주애(朱崖)<sup>24)</sup>로 쫓겨난 전말과는 거의 비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24) 주애(朱崖): 애주(崖州)의 고친 이름이니, 즉 선종(宣宗) 즉위 후 이덕유가 참소를 받아 애주사호참군사(崖州司戶參軍事)로 폄척되어 그곳에서 죽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唐書 卷180》

## 11) 劉三複記三生事

唐大和中, 李德裕鎮浙西。有劉三複者, 少貧苦學, 有才思。時中人齋禦書至以賜德裕, 德裕試其所爲, 謂曰: “子可爲我草表, 能立就或歸以創之。”三複曰: “文理貴中, 不貴其速。”德裕以爲當言。三複又請曰: “漁歌樵唱皆傳公述作, 願以文集見示。”德裕出數軸與之。三複乃體而爲表, 德裕嘉之, 因遣詣闕求試, 果登第, 曆任台閣。三複能記三生事, 云曾爲馬。馬常患渴, 望驛而嘶, 傷其蹄, 則心連痛。後三複乘馬過礪確之地, 必爲緩轡, 輒有石必去之。其家不施門限, 慮傷馬蹄也。其子鄴敕賜及第, 登廊廟, 上表雪德裕以朱崖神櫬歸葬洛中, 報先恩也。士大夫美之。

당나라 대화(大和) 연간에 이덕유가 절서(浙西)지방에 출진하였다. 유삼복(劉三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가난하여 힘들게 공부하여 재주가 있었다. 당시 궁중 사람이 성지(聖旨)를 가지고 이르러 이덕유에게 하사하니 이덕유가 유삼복의 재능을 시험하려고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위해 표문(表文)을 초안할 수 있는가? 선 자리에서 나갔다가 후 돌아오는 사이에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유삼복이 말하기를, “문리는 중도에 맞는 지를 귀하게 여기고 빨리 쓰는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덕유가 합당한 얘기라고 여겼다. 유삼복이 또 청하기를, “어부의 노래와 나뭇꾼 노래는 모두 공이 저술한 것을 전하였으니 원컨대 문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이덕유가 몇 축(軸)을 꺼내어 주었다. 유삼복이 이내 체득하여 표문을 지으니 이덕유가 가상하게 여겼다. 인하여 대궐에 보내어 응시하게 하니 과연 급제하여 태각(台閣)을 역임하였다. 유삼복은 삼생(三生)<sup>25)</sup>의 일을 기억하여 일찍이 말이 되었다고 했다. 말은 항상 갈증을 느끼는데 역참을 바라보고 울고 말발굽을 다치면 심장도 연달아 통증을 느낀다. 훗날 유삼복이 말을 타고 효확(礪確)의 땅을 지나면 반드시 고삐를 풀고 수레바퀴에 돌이 끼면 반드시 제거하였다. 그 집에는 문턱을 설치하지 않으니 말발굽이 상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아들 유엽(劉鄴)이 조

25) 삼생(三生): 불교에서 전생(前生)·금생(今生)·후생(後生)을 가리키는 말로, 전생에 신선이었던 자신이 잘못하여 금생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말이다.

칙으로 급제하여 낭묘(廊廟)에 오르자 표문을 올려 이덕유가 주에서 유해를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와 장사지내게 하니 앞선 은혜에 보답하였다. 사대부가 아름답게 여겼다.

12) 禿角犀

杜邠公悰，司徒佑之孫，父曰從鬱，曆遺補畿令。悰尚憲宗岐陽公主，累居大鎮，複居廊廟。無他才，未嘗延接寒素，甘食竊位而已。有朝士貽書於悰曰：“公以碩大敦龐之德，生於文明之運。矢厥謨猷，出入隆顯。”極言譏之，文多不錄。時人號爲禿角犀。凡蒞藩鎮，未嘗斷獄，系囚死而不問，宜其責之。嗚呼！處高位而妨賢，享厚祿以豐己。無功於國，無德於民。富貴而終，斯又何人也！子孫不享，何莫由斯。

빈공 두중(邠公 杜悰)은 사도 두우(杜佑)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두중을(杜從鬱)로 유보(遺補)와 경기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두중은 헌종의 기양공주(岐陽公主)에게 장가들어 자주 대진(大鎮)에 출진하였고 낭묘(廊廟)에도 거둬 벼슬하였다. 다른 재주는 없이 일찍이 한미한 사람과 교류한 적도 없이 공밥을 먹고 자리를 차지할 뿐이었다. 조정의 어떤 사대부가 두중에게 편지를 주며 말하기를, “공은 위대하고 두터운 덕으로 문명의 운명에 태어났소. 맹세컨대 이 계책으로는 현달한 지위에 출입할 것이요.”라며 극언으로 기롱하니 원문 대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이 독각서(禿角犀)라고 불렀다. 무릇 번진에 부임할 때마다 옥사를 처결한 적이 없었는데 죄수가 죽어도 심문하지 않으니 문책해야 마땅하다. 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현인을 훼방하며 후한 녹봉을 누리서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나라에 공훈은 없고 백성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다. 부귀한 채 삶을 마감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자손은 부귀를 누리지 못하니 어찌 여기에 말미암지 않겠는가.

13) 魏文貞公笏

唐文宗皇帝謂宰相曰：“太宗得魏征采拾闕遺，弼成聖政。今我得魏謨，

於疑似之間必極匡諫。雖不敢希及正觀之政，庶幾處無過之地。今授謨右補闕，委舍人善爲之詞。”又問謨曰：“卿家有何圖書”謨曰：“家書悉無，唯有文貞公笏在。”文宗令進來。鄭覃在側，曰：“在人不在笏。”文宗曰：“卿渾未曉。但‘甘棠’之義，非要笏也。”

당나라 문종(文宗)황제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태종께서 위징(魏徵)<sup>26)</sup>을 얻어 놓치신 부분을 수습하시니 성정(聖政)을 도와 이루셨다. 지금 나는 위모(魏謨)를 얻었으니 의심나는 사안에 대해 반드시 간곡하게 간언 해야 한다. 비록 감히 정관(貞觀 당나라 태종의 연호)의 성정에 미치기를 바랄 수 없지만, 거의 과오가 없는 지경에는 처하는 듯하다. 지금 위모에게 우보궐(右補闕)에 제수하여 관리들의 선행을 알리는 글을 맡기노라.”라고 하였다. 또 위모에게 물기를 “경의 집에는 어떠한 그림과 책이 있는가?”라고 하니 위모가 아뢰기를, “집안의 책은 모두 없어졌는데 오직 문정공(文貞公 위징)의 홀(笏)만 남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문종이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정담(鄭覃)이 곁에 있다가 아뢰기를, “사람에게 있지 홀에는 없습니다.” 하니 문종이 말하기를, “경은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구려. 다만 감당(甘棠)<sup>27)</sup>의 의리이지 홀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 3. 《북몽쇄언(北夢瑣言)》第二卷

#### 1) 皮日休獻書

咸通中，進士皮日休進書兩通。其一請以孟子爲學科，其略云“臣聞聖人

26) 위징(魏徵): 580~643. 중국 당(唐)나라 곡성(曲城) 사람으로, 자는 현성(玄成),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벼슬은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 태자태사(太子太師)를 지내고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 저서로 《유례(類禮)》, 《군서치요(群書治要)》 등이 있다.

27) 감당(甘棠): 팔배나무이다. 《시경(詩經)》〈소남(召南) 감당(甘棠)〉에, “주(周)나라 소공 석(召公奭)이 남국(南國)을 순시하다가 팔배나무의 밑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그 팔배나무를 차마 베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옛날 현인을 사모한 나머지 그가 머물던 곳이나 사용한 물건을 사랑한다는 의미임.

之道不過乎經，經之降者不過乎史，史之降者不過乎子。子不異道者，孟子也。舍是而諸子者必斥乎經史，爲聖人之賊也”云云。文多不載。請廢莊列之書，以孟子爲主。有能通其義者，其科選請同明經也。其二請以韓文公愈配饗太學，其略曰“臣聞聖人之道不過乎求用。用於生前則一時可知也，用於死後則萬世可知也”云云。又云：“孟子、荀卿翼輔孔道，以至於文中子。文中之道曠矣，其幾乎室授者唯韓愈焉。蹴及楊墨，蹂踐釋老，故得孔道，炳然如日星焉。吾唐以來，一人而已。苟不得在二十一賢之數列，則典禮未爲備也。”日休先字逸少，後字襲美，襄陽竟陵人也。業文隱鹿門山，號醉吟先生。竊比大聖，榜未及第。禮部侍郎鄭愚以其貌不揚，戲之曰：“子之才學甚富，如一目何”休對曰：“侍郎不可以一目廢二目。”謂不以人廢言也。舉子咸推伏之。官至國子博士。寓蘇州，與陸龜蒙爲文友。著《文藪》十卷，《皮子》三卷，人多傳之。黃寇中遇害，其子爲錢尚父吳越相。

함통(咸通 당나라 의종(懿宗)의 연호로 860~873) 연간에 진사 피일휴(皮日休)<sup>28)</sup>가 글 2통을 바치니 하나는 맹자를 학과로 삼으라는 주청이니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듣기로 성인의 도는 경전을 넘지 않고 경전이 내려와도 역사를 넘지 않으며 역사가 내려와도 선생님을 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도와 다르지 않나니 바로 맹자입니다. 이 분을 버려두고 제자백가는 반드시 경전과 역사를 배척할 것이니 성인의 적이 됩니다.” 운운. 원문은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 《장자(莊子)》와 《열자(列子)》의 글을 학과에서 폐지하고 맹자를 위주로 삼으라고 청하였다. 그 의리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과목에 선정된 급제자는 명경과(明經科)와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주청하였다. 그 두 번째는 문공 한유(文公 韓愈)를 태학에서 배향하기를 주청하니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듣

28) 피일휴(皮日休): 당나라 양양(襄陽) 사람으로 자는 습미(襲美) 또는 일소(逸少), 별호는 녹문은사(鹿門隱士)이다. 함통(咸通 860~873) 연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벼슬은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이르렀다. 저서에 《피자문수(皮子文藪)》·《녹문은서(鹿門隱書)》 60편이 있다. 《唐詩記事 卷64》 《海錄碎事 人事 隱逸》

기로는 성인의 도는 실용을 구하는데 넘지 않으니, 살아생전에 쓰이면 당시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뒤에 쓰이면 만세(萬世)를 알 수 있습니다.” 운운. 또 말하기를,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도를 보충하셔서 문중자에 이르렀습니다. 문중의 도는 비었습니다만 거의 실수자는 오직 한유 뿐입니다.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을 축출하고 석가와 노자를 깃뺐았기 때문에 공자의 도를 얻어서 해와 별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 당나라 이래로 오직 한 분 뿐입니다. 진실로 숫자대로 나열한 21분의 현자에 들지 않는다면 전례는 완비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피일휴는 처음 자는 일소(逸少)이고 나중 자는 습미(襲美)이니 양양(襄陽)의 경릉(竟陵) 사람이다. 문장을 업으로 삼아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하여 ‘취음선생(醉吟先生)’이라고 스스로 호를 붙였다. 삼가 대성인에 비견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예부시랑 정우(鄭愚)는 피일휴의 추한 얼굴 때문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자 희롱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재주와 학문은 매우 풍부한데 한쪽 눈을 어이할꼬.”라고 하니 피일휴가 대답하기를, “시랑께서는 한 쪽 눈으로 양쪽 눈을 감지 못하십니다.”라고 하였다. 사람으로 말을 못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급제자들 모두 추앙하여 복종하였다. 관직은 국자박사에 이른다. 소주(蘇州)에 살면서 육구몽(陸龜蒙)과 글벗이 되었다. 《문수(文叢)》 10권, 《피자(皮子)》 3권을 저술하니 사람들이 많이 전하였다. 황소(黃巢)의 난리 중에 피살되자 그의 아들이 전상보(錢尚父)를 위해 오나라와 월나라 지역의 상(相)이 되었다.

## 2) 宰相國怙權

宣宗時，相國令狐綯最受恩遇而怙權，尤忌勝己。以其子瀉不解而第，爲張雲、劉蛻、崔瑄疊上疏疏之。宣宗優容，綯出鎮維揚，上表訴之冤，其略云：“一從先帝久次中書，得臣恩者謂臣好，不得臣恩者謂臣弱。臣非美酒美肉，安能啖衆人之口！”時以執己之短，取諫於人。或云曾以故事訪於溫岐，對以其“事出《南華》”，且曰：“非僻書也，或冀相公變理之暇時宜覽古。”綯益怒之，乃奏岐有才無行，不宜與第。會宣宗私行爲溫岐所忤，乃授

方城尉。所以岐詩云：“因知此恨人多積，悔讀《南華》第二篇。”又李商隱，絢父楚之故吏也，殊不展分，商隱憾之，因題廳閣，落句云：“郎君官重施行馬，東閣無因許再窺。”亦怒之。官止使下員外也。江東羅隱亦受知於絢，畢竟無成，有詩《哭相國》云：“深恩無以報，底事是柴荆。”以三才子怨望，即知絢之遺賢也。

선종(宣宗) 때 재상 영호도(令狐絢)가 가장 융숭한 성을 받아 권력을 밑자 더욱 자신을 능가하는 이를 꺼렸다. 그의 아들 영호호(令狐滈)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장운(張雲), 유태(劉蛻), 최선(崔瑄)을 위해 누차 상소를 올려 소원하게 하였다. 선종이 너그럽게 받아들이자 영호도가 유양(維揚)에 출진하였고 표문을 올려 억울함을 하소연 하니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결같이 선황제를 호종하여 오랫동안 중서성에 근무하였는데 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을 좋게 말하고 신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을 약하다 말합니다. 신은 맛좋은 술이나 고기가 아닌데 못사람들의 입을 어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자신의 단점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한다. 누구는 혹 일찍이 옛일로 온기(溫岐)<sup>29)</sup>를 방문했는데 옛일이란 《남화경(南華經)》에서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또 말하기를, “편벽된 글이 아니다. 누군가 상공께서 정사를 섭리하는 한가한 시간에 옛일을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영호도가 더욱 격노하여 바로 온기는 재주는 있지만 행실이 좋지 않으니 급제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청하였다. 마침 선종은 사적으로 온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했는데, 이내 방성위(方城尉)에 제수하였다. 온기의 시에 이르기를, “이 한을 알기에 사람들이 많이 쌓았는데, 《남화경(南華經)》 제2편을 읽은 것이 후회되네.”라고 하였다. 또 이상은(李商隱)과 영호도의 아버지는 초(楚 호북성)지역의 옛 관리로 자못 분수를 펴지 못하자 이상은이 안타까워하였

29) 온기(溫岐): 온정균(溫庭筠)을 말한다. 당나라의 문장가로서 본명은 기(岐), 자는 비경(飛卿). 문장이 뛰어나, 당시 대문장가인 이상은(李商隱)과 이름이 대등하였고, 저서에는 《악란집(握蘭集)》·《금전집(金荃集)》·《한남진고(漢南眞稿)》가 있음.

다. 인하여 관청의 누각에 낙구(落句)를 지었다. “낭군의 관직은 무거워 말을 돌려 타고, 동각은 인연 없어 다시 엿보네.”라고 하니 또한 화를 내었다. 관직은 사하원외에 그쳤다. 강동의 나은(羅隱) 역시 영호도가 알아주었는데 필경에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자 《곡상국(哭相國)》시를 지어 “깊은 은혜 보답할 길 없어, 모든 일이 가시밭길이로다.”라고 했다. 세 재주있는 인사의 원망으로 곧 영호도가 현자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駱山人告王庭湊

唐田弘正之領鎮州，三軍殺之而立王庭湊，即王武俊支屬也。庭湊生於別墅，嘗有鳩數十只朝集庭樹，暮集簷下。有里人駱德播異之。及長，駢脅，善陰符鬼穀之書。曆軍職，得士心。曾使河陽回，在中路以酒困寢於路隅，忽有一人荷策而過，熟視之，曰：“貴當列土，非常人也。”仆者寤以告庭湊，庭湊馳數里及之，致敬而問，自云“濟源駱山人也。向見君鼻中之氣，左如龍而右如虎。龍虎氣交王在今秋，子孫相繼滿一百年。”又云：“家之庭合有大樹，樹及於堂，是其兆也。”是年果爲三軍扶立爲留後，歸別墅而庭樹婆娑，暗庇舍矣。墅西飛龍山神，庭湊往祭之。將及祠百步，有人具冠冕折腰於庭湊。及入廟，神乃側坐。至今面東，廟宇尚存焉。庭湊清儉公正，忠於朝廷，勤於軍民，子孫世嗣爲鎮帥。至朱梁時，王鎔封趙王，爲部將張文禮滅之。

당나라 전홍정(田弘正)<sup>30</sup>이 진주(鎮州)를 다스리자 삼군(三軍)이 그를 죽이고 왕정주(王庭湊)를 옹립하니 바로 왕무준(王武俊)의 지속(支屬)이었다. 왕정주는 별장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까마귀 수 십 마리가 아침에는 뜰의 나무에 모여들고 저녁에는 처마 밑에 모였다. 마을 사람 낙덕과(駱德

30) 전홍정(田弘正): 당 목종(唐穆宗) 때 진주(鎮州)에 난이 일어나서 성덕군 절도사(成德軍節度使) 전홍정이 진인(鎮人)과 싸웠는데, 그때 왕정주가 진주에 들어가 민중을 선동하여 전홍정을 죽이고 유후(留後)라 자칭하였다. 목종이 당시 병부 시랑(兵部侍郎)인 한유에게 진주를 선무(宣撫)하도록 명하였다. 마침내 한유가 진주에 당도하자, 왕정주가 병위(兵威)를 삼엄하게 하여 한유를 맞았는데, 한유가 왕정주의 비행을 준절히 책망하였다.

播)가 기이하게 여겼다. 장성하자 갈비뼈가 붙고<sup>31)</sup> 《음부경(陰符經)》과 《귀곡자(鬼谷子)》<sup>32)</sup> 책을 좋아하였다. 군직을 역임하면서 병사들의 군심을 얻었다. 일찍이 하양(河陽)의 절도사로 있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술기운 때문에 길가에서 노숙을 하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채찍을 매고 지나가면서 응시하며 말하기를, “열토(列土 제후국)를 담당할 귀인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시종이 깨어나 왕정주에게 사실을 고하니 왕정주가 몇 리를 내달려 만났다. 공경을 다해 물으니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제원(濟源)의 낙산(駱山) 사람으로, 지난번에 그대 콧속에서 나오는 기운을 보았는데 왼쪽은 용과 같고 오른쪽은 범과 같았소. 용과 범의 기운이 교차하니 올해 안에 왕이 되겠고, 자손이 계승하여 100년을 채울 것이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집의 뜰에 큰 나무가 있어 나무가 당실에 이르니 이것이 제왕이 될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과연 삼군이 융립하여 유후(留後)<sup>33)</sup>가 되었다. 별장으로 돌아와 보니 뜰의 나무가 우거져서 그들이 별장을 뒤덮었다. 별장 서쪽에 비룡산(飛龍山) 신이 있어 왕정주가 제사지내러 갔다. 사당까지 백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갖추고 왕정주에게 허리를 꺾어 인사하였다. 사당에 들어서자 신이 곁에 앉았다. 지금도 동쪽을 향하면 사당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왕정주는 청렴하고 공정하며 조정에 충성을 다하고 군사와 백성에게 근면하니 자손이 대를 이어 번진의 장수가 되었다. 주량(朱梁 주전충(朱全忠)의 후량(後

31) 갈비뼈가 붙고: 갈비뼈가 붙었다는 뜻으로, 진 문공(晉文公)이 이런 몸이었다고 한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3년 조에 “진 공자의 통뼈 갈빗대를 보려 하여 그가 옷 벗고 목욕할 때에 바깥 다가가서 보았다.(晉公子駢脅欲觀, 其裸浴, 薄而觀之.)”라고 하였다.

32) 《음부경(陰符經)》와 《귀곡자(鬼谷子)》: 병서(兵書)인 《음부경》은 황제(黃帝)가 저술하고 태공(太公), 범려(范蠡), 귀곡자(鬼谷子), 장량(張良), 제갈량(諸葛亮), 이진(李筮)이 주석을 달았다고 전해진다. 경문이 384언으로 된 한권의 책이다. 《新唐書 卷59 藝文志》 귀곡(鬼穀)은 귀곡자(鬼谷子)의 오류로 보인다.

33) 유후(留後): 당나라 때 관찰사나 절도사가 밖에 나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梁) 때에 이르자 왕용(王鎔)이 조왕(趙王)에 봉해졌지만 부장 장문례(張文禮)에게 멸문 당했다.

#### 4) 授任致寇

唐馬植相公曾鎮安南，安撫軍民，懷柔蠻獠，廢珠池，尚儉素。李琢後鎮是邦，用法大酷，軍城遠出而屬南蠻，六七年間，勞動兵役。咸通七年，高駢收復之。先是，荊、徐間征役拒蠻，人甚苦之。有舉子聞許卒二千沒於蠻鄉，有詩刺曰：“南荒不擇吏，致我交趾覆。聯綿三四年，致我交趾辱。懦者門則退，武者兵益黷。軍容滿天下，戰將多金玉，刮得齊民瘡，分爲猛士祿。雄雄許昌師，忠武冠其族。去爲萬騎風，住爲一川肉。時有踐卒回，千門萬戶哭。哀聲動閭裏，怨氣成山穀。誰能聽鼓聲，不忍看金鏃。念此堪淚流，悠悠潁川綠。”吟此詩有以見失於授任，爲國家生事。大東之苦，斯其類乎。

당나라 재상 마식(馬植)이 일찍이 안남(安南) 출진(出鎭)하여 군사와 백성을 안무하고 오랑캐를 회유하였으며 주지(珠池)를 폐지하고 검소를 숭상하였다. 이탁(李琢)이 그 지방의 후임으로 출진하였는데 형법을 몹시 혹독하게 적용하자 군사와 성 주민이 멀리 도망쳐 남만에 예속되니 6,7년 사이에 병역이 힘들었다. 함통 7년에 고변(高駢)이 수복하였다. 이보다 앞서 형주(荊州)와 서주(徐州) 사이에 오랑캐를 막는 원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였다. 어떤 급제자가 허창(許昌)의 군사 2000명이 오랑캐 지역에서 전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풍자하였다.

관리 잘못 가려서 남방 황폐하니	南荒不擇吏
나를 다시금 교지에 이르게 하네	致我交趾覆
침침 이어진 산속에 삼사년 만에	聯綿三四年
나를 욕되게 교지에 이르게 하네	致我交趾辱
나약한 이는 전투에서 도망치고	懦者門則退
무사는 병법에 더욱 까딱하구려	武者兵益黷
군대의 위용은 천하에 가득한데	軍容滿天下

진장의 장군은 금옥이 잔뜩있네	戰將多金玉
백성들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刮得齊民瘡
용맹한 무사에게 녹봉을 나누네	分爲猛士祿
웅장하기 그지없는 허창 군대여	雄雄許昌師
충정과 무예는 무리에서 최고라	忠武冠其族
가면 일만 기병의 바람 일지만	去爲萬騎風
머물면 온 냇가의 고기가 되네	住爲一川肉
때때로 정찰 간 병사 돌아오면	時有踐卒回
이집 저집에서 곡소리 울리네	千門萬戶哭
슬픈 곡소리 마을에 요동치고	哀聲動閭裏
원망의 기운은 산골짜к 이루네	怨氣成山谷
누가 북소리 들을 수 있을는지	誰能聽鼓聲
쇠 화살촉 차마 볼 수 없구려	不忍看金鏃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 흐르니	念此堪淚流
그윽한 영천은 푸르고 푸르네	悠悠潁川綠

이 시를 읊으니 임무를 주는데 실수하여 국가에 사달이 되니 대동(大東)의 고난이 이와 비슷하다.

### 5) 高駢開海路

安南高駢奏開本州海路。初交趾以北距南海，有水路，多覆巨舟。駢往視之，乃有橫石隱隱然在水中，因奏請開鑿以通南海之利。其表略云：“人牽利楫，石限橫津。才登一去之舟，便作九泉之計。”時有詔聽之，乃召工者啖以厚利，竟削其石。交廣之利民至今賴之以濟焉。或言駢以術假雷電以開之，未知其詳。葆光子嘗聞閩王王審知患海畔石崎奇爲舟楫之梗，一夜夢吳安王許以開導，乃命判官劉山甫躬往祈祭。三奠才畢，風雷勃興。山甫憑高觀焉，見海中有黃物，可長千百丈，奮躍攻擊。凡三日，晴霽，見石港通暢，便於泛涉。於時錄奏，賜名甘棠港。即渤海假神之力，又何怪焉。亦號此地爲天威路，實神功也。

안남(安南)의 고변(高駢)이 본 고을에 바닷길을 열도록 주청하였다. 처

음에 교지(交趾) 이북지역은 남해와 떨어져 수로가 있었지만 큰 배도 많이 전복될 정도이다. 고변이 가서 보고는 이내 암초가 흐릿하게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남해로 통하도록 개척하여 뚫자고 주청했던 것이다. 그의 표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한다. “이람이 편리한 노를 끌고 돌이 흙은 나루를 가로지릅니다. 겨우 한 번 떠난 배에 오르면 곧 구천으로 떨어질 계획이 됩니다.” 이때에 조칙으로 주청을 들어 주고 이내 공장을 소집하여 후한 이익을 받아먹고 마침내 그 돌을 깎았다. 교지와 광동의 백성을 이롭게 하여 지금까지도 바다를 건너는데 도움을 받는다. 흑자는 고변이 우레와 번개를 빌리는 술수를 써서 개통했다고 말하는데 그 상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

손광현은 일찍이 민왕 왕심지(閩王 王審知)가 해안가의 바위 험준해서 항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밤에 오안왕(吳安王)이 길을 열어 안내하는 꿈을 꾸었는데 깨자마다 판관 유산보(劉山甫)에게 명하여 몸소 가서 제사를 지냈다. 삼전례(三奠禮)<sup>34</sup>가 막 끝날 무렵 바람과 뇌우가 거세게 일어났다. 유산보는 고지대에 의지해 관찰하였는데 바다 속에 노란색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길이가 천장은 족히 되고 뛰어올라 공격하였다. 대개 나홀이 지나자 비는 말끔하게 개이고 암석 포구가 통행하는 것을 보고는 곧장 배를 띄워 바다를 건넜다. 이 때에 기록하여 아뢰니 감당항(甘棠港)이라는 명칭을 하사받았다. 곧 발해(渤海)가 해신(海神)의 힘을 빌린 것이 또 무엇이 괴이하게 여기는가. 또한 이 땅을 천위로(天威路)라고 부르니 실로 해신의 공로이다.

#### 6) 放孤寒三人及第

咸通中, 禮部侍郎高湜知舉, 榜內孤貧者公乘億賦詩三百首, 人多書於屋壁. 許棠有《洞庭詩》尤工, 詩人謂之“許洞庭”. 最奇者有聶夷中, 河南中都人, 少貧苦, 精於古體, 有《公子家》詩云: “種花於西園, 花發青樓

34) 삼전례(三奠禮): 종묘나 사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술잔을 세 번 올리는데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이라 하며 세 번 술을 올리면 제사가 끝난다.

道。花下一禾生，去之爲惡草。”又《詠田家》詩云：“父耕原上田，子斫山下荒。六月禾未秀，官家已修倉。”又云：“鋤禾日當午，汗滴禾下土。誰念盤中餐，粒粒皆辛苦。”又云：“二月賣新絲，五月糶新穀。醫得眼前瘡，剜卻心頭肉。我願君王心，化爲光明燭。不照綺羅筵，只照逃亡屋。”所謂言近意遠，合《三百篇》之旨也。盛得三人，見滉之公道也。葆光子嘗有同僚示我調舉時詩卷，內一句云“科松爲蔭花”，因譏之曰：“賈浪仙云：‘空庭唯有竹，閑地擬栽松。’吾子與賈生，春蘭秋菊也。”他日赴達官牡丹宴，欄中有兩松對植，立命斧斫之，以其蔭花。此侯席上於愚有得色，默不敢答，亦可知也。

함통 연간에 예부시랑 고식(高湜)이 과거를 담당했는데 방목 안에 고아 이면서 가난한 사람 공승억(公乘億)이 시 300수를 짓자 사람들이 집 벽에 많이 적었다. 허당(許棠)의 <동정시(洞庭詩)>는 더욱 공교로우니 시인들이 허동정(許洞庭)이라 불렀다. 가장 기이한 것은 섭이중(聶夷中)<sup>35)</sup>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남(河南)의 중도(中都) 사람으로 어려서 몹시 가난하였지만 고체시에 정통하였다. <공자가(公子家)>라는 시에 “서쪽 정원에 꽃 심자, 푸른 누대로 가는 길에 꽃 피웠네. 꽃 아래 벼 한 줄기 자라났지만, 잡초에 제거되었네.”라고 하였다. 또 <영전가(詠田家)>라는 시에, “아버지는 언덕 위 밭을 갈고, 아들은 산 아래 황무지에 나무하네. 유월인데 벼 익지 않았는데, 관가는 창고를 수리하였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벼에 호미질 하다 정오 되니, 땀방울은 벼 아래 흙에 떨어네. 누가 쟁반 속 밥이, 한 톨 한 톨 모두 농부의 고생인줄 알까.”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월에 새로 짠 옷감 팔고, 오월에 새로 거둔 곡식 내다파네. 의원은 눈앞의 상처 치료하고, 마음의 종양을 도려내네. 아는 임금님 마음이, 밝은 촛불로

35) 섭이중(聶夷中): 당나라 말기 시인으로 생졸년은 837?~884?이고, 자는 탄지(坦之)이며, 하동(河東) 사람이다. 의종(懿宗) 함통(咸通) 12년(871) 진사(進士)가 되어 오랫동안 장안(長安)에 있다가 화음현위(華陰縣尉)에 올랐다. 《전당시(全唐詩)》에는 시가 1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시의 대부분은 5언시고, 대표작에 <영전가(詠田家)>와 <공자행(公子行)> 등이 있다. 만당(晩唐)의 현실주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농촌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를 주로 썼는데 시는 순박하고 진솔하다.

변하길 바라오. 화려한 연회석만 비추지 마시고, 도망해온 집에도 비춰주시길.”라고 하였다. 이른바 언어는 가깝고 의미는 멀어서 《시경(詩經)》의 취지와 부합한다. 세 명의 성대한 인재를 얻으니 고식의 공도를 볼 수 있다.

손광현은 일찍이 동료에게 내가 과거 때 제출한 시권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중 한 구절에 “소나무 심어 꽃그늘 만드네.”라고 하니, 인하여 장난삼아 “〈가의가 신선 구름을 일렁이다〉에서 ‘빈 뜰에는 대나무만 남으니, 한가한 땅에 소나무나 심으려다.’ 하니 그대는 가의와 함께 봄에는 난초요 가을에는 국화로드.”라고 하였다. 훗날 현달한 고관의 모란꽃 연회에 달려가 보니 난간 가운데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마주보고 심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도끼로 찍어내라고 명하니 그 꽃그늘이 성가시기 때문이다. 이 수령의 연회석에서 어리석게 득의양양한 얼굴빛으로 침묵하며 감히 화답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7) 文宗王重王起

王文懿公起三任節鎮，揚曆省寺，贈守太尉。文宗頗重之，曾爲詩寫於太子之笏以揚之，又畫儀形於便殿，師友目之曰“當代仲尼”。雖曆外鎮，家無餘財。知其甚貧，詔以仙韶院樂官逐月俸錢五百貫給之。起昧於理家，俸入其家，盡爲僕妾所有，耄年寒餓，故加給焉。於時識者以起不能陳遜而與伶人分俸，利其苟得，此爲短也。葆光子曰：“士人之家唯恥貨殖，至於荷畚執耒，灌園鬻蔬，未有祿以代耕，豈空器而爲養，安可忘甘苦，不迨晨昏。今之世祿蠶薄，不能搏節，稍豐則飫其狗彘，少歉則困彼妻孥，而云安貧，吾無所取。唯衣與食，所謂切身。儻德望名品未若王相國者，得不思儉而足用乎。”

문의공 왕기(文懿公 王起)는 절도사에 3번이나 임명되고 성(省)이나 시(寺)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태위에 추증되었다. 문종이 자못 중용하여 일찍이 태자 시절 홀(笏)에다 시를 베껴 써서 명성을 드날리고 또 편전(便殿)에다 거동하는 모습을 그리니 사우가 지목하여 ‘당대의 공자님’이라 하였다. 비록 외방의 번진을 두루 역임하였지만 집안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

매우 가난한 것을 알고는 조서를 내려 선소원(仙韶院) 악관의 매월 봉급 수준인 전 500관을 지급하게 하였다. 왕기는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어 봉록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모두 노비나 소실의 차지가 되어 말년에는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더 지급한 것이다. 이때에 식자들은 왕기가 사양할 줄 몰라 영인(伶人 악공)과 봉록을 나누고 구차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다.

손광헌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대부의 집은 오로지 재물 불리는 것만 부끄럽게 여기니 심지어 삼태기를 매고 쟁기를 잡아 농사지으며, 채마 밭에 물 대고 채소를 팔아 봉록이 없어서 대신에 농사짓는 것이니 어찌 쌀독을 비워서 봉양하며, 어찌 달고 쓴 음식을 잊으며 새벽과 저녁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세상의 복록은 야박하여 절약하지 못하면 조금 풍년이 들면 개와 돼지를 실컷 먹이지만, 조금 흉년이 들면 저들의 처자식을 곤궁하게 하니 안빈낙도를 운운하는 것이야 내가 취한 바가 없다. 오직 옷과 음식은 이른바 몸뚱이에 절실한 것이다. 혹시 덕망과 명성이 왕제상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검소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풍족하게 쓸 수 있겠는가.

### < 참고문헌 >

- 房銳, 《孫光憲與《北夢瑣言》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房銳, 《北夢瑣言》與唐五代史籍, 《四川師範大學學報》第4期, 2003.1.  
 庄學君, 《北夢瑣言》研究, 西南師範大學, 1990.  
 孫光憲 撰, 賈二強 點校, 《北夢瑣言》, 北京: 中華書局: 2002.  
 孫光憲, 《北夢瑣言》, 全宋筆記第一編一, 鄭州: 大象出版社, 2003.  
 이은진, 《亂世 속 治世의 記錄- 宋初筆記北夢瑣言을 중심으로》, 《중국어 문학논집》 제103집, 2017.

< Abstract >

An author of *Beimengsuoyan*, Sun Guangxian was born towards the fall of Tang Dynasty and went through the period Five Dynasties and Ten Kingdoms and died watching the founding of Song Dynasty. About 400 various stories of *Beimengsuoyan* include reports about a chaotic situation of fragmentation and collapse of many countries, the private life of officials and that of commoners offering a glimpse at everyday life and custom of those period. *Beimengsuoyan* is a history book that h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value. In addition, various contents related to a literary episode, literature, history, folklore, life history, political history and even climate are included in this book. It is a collection of social customs and anecdotes of writers of the five ages at the end of the day, providing valuable raw materials for studying writers and literary works of the time.

Key Words : 北夢瑣言(*Beimengsuoyan*), 손광현(Sun Guangxian),  
五代十國(Five Dynasties and Ten Kingdoms), 역사적 기록  
(Historic Record), 문학 일화(literary episode), 정치적 역사  
(political history)